

드라마 제작의 알파와 오메가 - 3

드라마 제작에서 기술 staff의 역할 : 음향감독, 사운드믹스, 음향효과

글.

김태홍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조명감독

연재 목차

1회. 기술감독, 영상감독, 녹화감독

2회. 조명감독

3회. 음향감독, 사운드믹스, 음향효과

4회. 종합편집, 스튜디오 카메라감독

스튜디오 음향감독

기본 업무

드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녹화 및 타 드라마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한 출연 연기자의 음색과 발성 등을 먼저 체크한다. 이후 해당 드라마 인터넷 카페에 회원 가입 후 대본을 미리 읽고 전반적인 음향에 대한 설계를 준비한다. 음향감독은 엔지니어로 입사해 3~4년 정도 음향 관련 업무를 하면 드라마의 음향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고, 콘솔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음색에 대한 음향감독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음색이 연출되기도 한다.

스튜디오와 세트의 체크

마이크 붐 오퍼레이터(마이크맨)와 함께 리허설 전에 스튜디오의 세트를 점검하고 마이크 붐 스탠드(Boom Dolly)의 사용 구역을 확인한 후 세트가 걸려 붐대의 설치가 어려운 곳은 미술 디자이너에게 보강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세트의 일부를 제거하기도 한다. 냉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공조는 녹화 1시간 전에 공조실에 연락하여 녹화 시 공조에 의한 팬 소리가 음향의 수음(Pick up)에 지장 없게 조치한다. 일반적으로 녹화 시작 전까지 충분히 냉난방 후 녹화 시 아주 약하게 가동하는 편이다.

스튜디오 출입문 확인

녹화 시 스튜디오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텔리 램프(Tally Lamp)를 점등시켜 스튜디오 녹화 진행 알림을 표시해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을 차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진행 팀에게 고지하여 녹화 시 출입문을 통제시키기도 한다.

스튜디오 음향 담당자(마이크맨)

드라이 리허설 시 음향감독과 함께 모든 장면에 필요한 마이크와 붐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본을 체크하여 음향감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스튜디오 음향 담당자의 운용에 따라 연기자의 대사 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조정실의 음향감독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숙련된 스튜디오 음향 담당자와 1~2명의 외주 오디오맨을 기용하기도 한다. 외주 오디오맨의 인건비는 드라마 제작비로 충당한다.

조명감독과 협의

드라마 녹화 시 마이크 그림자가 화면에 노출되면 여러 스태프들이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그림자가 화면에 노출되는 이유는 음향과 조명, 카메라 샷 그리고 연출자의 콘티 등 관련 스태프의 일정 부분이 조금씩 해당된다.

마이크의 위치가 조명 등기구 위치와 같은 방향이나 마이크 스탠드와 카메라의 위치가 반대로 위치에 녹화할 경우 카메라 방향에서 연기자에게 비추는 조명으로 인하여 연기자의 얼굴이나 세트에 마이크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

조명감독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 옮기거나 조율하기도 하며 마이크 그림자도 조명 팀과 협의하여 조절한다. 세트에 비추는 그림자는 카메라 샷이나 연기자의 위치 등을 조절하여 상쇄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세트의 질감 등을 파악하여 세트의 어두운 부분에 마이크 그림자를 숨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화면에 노출된 마이크 그림자는 영상 후반 작업(특수 영상 작업)을 통하여 화면에서 인위적으로 지우기도 한다. 드라마 운용상 조명 등기구의 온·오프 시 열에 의한 등기구의 뒤틀림으로 발생하는 등기구의 소음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후반 작업 시 처리하기도 한다. 음향 케이블은 전압에 민감하고 강전을 사용하는 조명 케이블 가까이에 포설하면 연기자의 대사 시 노이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명 케이블에 겹치지 않게 거리를 두고 포설해야 한다.

스튜디오 마이크와 붐(붐 스탠드)의 체크

음향의 마이크나 붐 스탠드의 운용 시 잡음이나 기타 불량한 것은 없는지를 마이크 담당자와 확인하여 교체하기도 한다. 주로 리허설이 끝난 이후 녹화 30분 전에 스튜디오와 부조정실의 음향 콘솔에서 스튜디오 음향 담당자와 음향감독이 인터컴이나 마이크를 직접 사용하며 체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본에 체크된 마이크 번호와 음향 콘솔에서 패치된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음향 대본과 음향 콘솔

마이크 번호가 패치된 콘솔과 연기자별로 다른 마이크 번호를 표시해 둔 대본, 콘솔의 C는 천장에서 아래로 내리는 Ceiling 마이크를 말하며 W는 벽에 장착된 Wall 마이크를 말한다.

마이크 윈드 스크린 사용 여부

최근 드라마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이크 그림자가 세트나 인물에 원래의 마이크보다 크게 노출될 수도 있고 사용 시 소리의 명료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조 등의 미세한 바람이 마이크에 떨어져 진동이 생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혹은 주위의 작은 잡음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윈드 스크린이 없는 드라마용 일반 마이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튜디오에서는 연기자의 대사 이외의 주변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픽업



윈드 스크린 마이크

스펀지 종류의 재질로 만들어진 윈드 스크린은 스튜디오 상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공조 바람 소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윈드 스크린을 사용하면 대사의 명료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세트 천장에 설치한 마이크

마이크 붐 스탠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연기자가 대사를 하는 경우 부직포로 제작된 세트 천장에 구멍을 뚫어 마이크를 설치, 이때 마이크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자가 대사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한다.

세트 마이크 부착 여부

마이크 붐 스탠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연기자가 연기 시 연기자의 가까운 세트 상부에 집게로 마이크를 고정시키거나 바닥에 마이크용 슛 스탠드를 사용하여 Pick up(수음)을 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연기자의 위치와 시선 방향에 대하여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고정이기 때문에 연기자의 시선이 바뀌면 대사의 픽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세트 마이크 자바라

붐 스탠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마이크 자바라를 사용해 세트에 부착,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자의 위치에 따라 조정



마이크 슛 스탠드

드라마 세트 바닥에 설치한 마이크 슛 스탠드와 무선 마이크

이동용 마이크 붐대의 사용 여부

마이크 붐 스탠드의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연기자가 앞뒤·좌우로 움직이면서 연기할 때 카본 등 가벼운 재질로 제작된 수동용 붐 스탠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마이크 담당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 붐대 운용 시 손 떨림에 의한 잡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선 마이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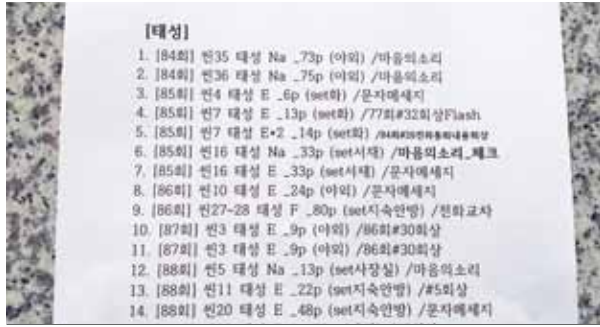
자주는 아니지만 드라마 내용상 연기자는 특수한 경우(예를 들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에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 연기자의 옷에 무선 마이크를 부착할 때는 움직임에 의하여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붐 스탠드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는 마이크용 선이 없는 관계로 붐 스탠드의 이동과 운용에 유리하지만, 음향 콘솔에서 음향의 gain 상승 시 노이즈 등이 미세하게 발생하여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효과맨의 관계

스튜디오에서 연기자가 이야기하는 대사 이외의 모든 소리(전화벨 소리, 마음의 소리, 전화 녹음 등)를 음향감독에게 보내며 연기자가 연기에 대한 감정을 끊임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효과음에 대한 전체적인 음의 밸런스는 음향감독이 관리한다. 연기자의 녹음은 조연출이 진행하고 효과맨이 녹음을 저장한다. 녹화 직전 해당 연기자는 부조정실 녹음 부스에서 녹음을 하는데, 이때 음향감독은 보다 나은 녹음을 위하여 연기자에게 마이크 사용법 및 소리의 감정 등에 대하여 조언하기도 한다.



연기자 녹음 큐시트

녹음이 필요한 장면을 표시하여 녹음용 진행표를 만들어 둔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인터컴

부조정실 인터컴

보이지는 않지만 드라마 녹화 시 가장 중요한 기본 방송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인터컴이다. 인터컴이 중요한 이유는 드라마를 비롯하여 모든 제작의 출발은 보이지 않은 스태프와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제작의 출발도 연출자 앞의 마이크를 통하여 큐 사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음향감독은 녹화 전에 영상감독과 함께 무선 인터컴과 카메라 인터컴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음향감독은 연출자와 무대 진행자(FD)의 인터컴을 특별히 점검해야 하고 당일 가장 양호한 제품을 FD에게 제공해야 한다.

음향 장비의 보수

단순하고 기본적인 장비는 스튜디오 음향 담당자와 함께 바로 정비하는 편이고 특수한 장비나 교체에는 음향 정비팀에게 이관하여 해결한다. 스튜디오 제작 시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 근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마이크 폼 스탠드 균형추

마이크 스탠드의 무게 중심을 맞춰 흔들림 없이 운용하기 위해 밸런스 무게 추를 설치(시소 원리)

음향 후반 작업(사운드 믹스)

드라마 음향 후반 작업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드라마의 음향은 반드시 후반 작업을 거쳐 방송된다. 후반 작업을 흔히 '사운드 믹싱' 또는 '더빙'이라고 한다. 더빙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어로 된 영화의 대사를 해당 언어로 바꾸어 다시 녹음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통상 드라마 음향의 후반 작업도 '사운드 믹스'와 '더빙'이란 말로 사용한다.

사운드 믹스 감독은 스튜디오 음향 감독과 비슷한 경력으로 선임되며 최근 드라마 음향에서는 스튜디오 못지않게 음향의 마지막 품질을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드라마 오디오 후반 작업의 개요

연출자나 편집자가 1차 편집실에서 편집한 파일을 음향 효과팀과 사운드 믹스팀이 동시에 받아 각자의 음향에 관한 편집을 진행한다. 음향 효과팀은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오디오 픽업하지 못한 소리나 음악을 실어 보내고 사운드 믹서실에서는 야외의 동시 녹음의 음향과 스튜디오 세트에서 제작된 음향을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한다. 최종 음향 파일은 완제품(방송에서는 '완제'라고 표현)을 제작하는 종합편집실로 보낸다.

음향 작업 과정

1. 소음 및 자연 음향을
지우거나 삽입2. 야외와 스튜디오 대사 톤을
일정하게 조정

3. 대사 레벨의 밸런스를 맞춤

4. 특수한 음향이나
효과음을 맞춤

5. 배우의 후시 녹음 진행

6. 각종 노이즈 제거

스튜디오 잡음 처리

스튜디오의 잡음은 크게 스튜디오의 소음과 조명 등기구의 소음으로 분류된다. 두 가지 경우 대사와 겹치지 않으면 후반 작업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사와 겹치는 경우는 세트에서 다시 제작해 주어야 완벽한 후반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등기구 온·오프 시 열의 팽창으로 조명 등기구의 뒤틀림 때문에 발생하는 일정한 노이즈는 대사와 겹치지 않더라도 가끔 적 스튜디오 세트 제작 시 재녹화하는 것이 좋다.



드라마 음향 후반작업을 하고 있는 사운드 편집실과 사운드 엔지니어

후반 작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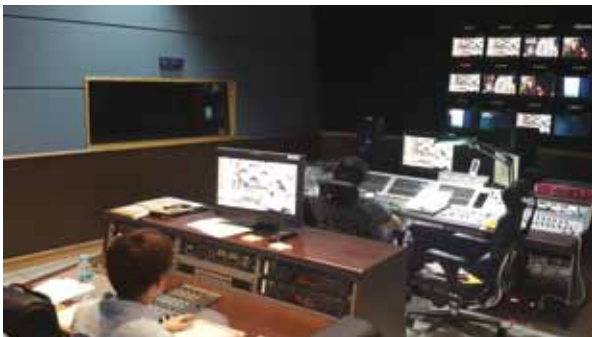
60분 미니시리즈나 연속극의 경우 초반에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10~2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만 드라마가 방송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일반적으로 2~3시간 정도 걸리며 효과팀의 작업도 3~4시간 정도 걸린다.

음향효과

드라마 효과

효과는 소리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효과를 통하여 날씨, 계절, 시제, 위치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방송사의 효과맨은 100%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한다.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가 없는 편이라 방송 관련 아카데미나 유사한 방송 관련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 효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입문하게 된다. 드라마 효과 음향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수치나 표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선배 효과맨의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고 운용된다.



부조정실 음향감독의 위치와 효과맨 자리

사진의 앞쪽에 위치한 음향감독과 뒤쪽에 위치한 효과맨, 좌측에 연기자 수시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아나부스가 보인다.

부조정실 효과

드라마 녹화 시 부조정실에서의 효과는 연기자의 감정과 극의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속마음의 표현을 들려주는 것이나 전화벨 소리 등 대사 이외의 각종 주변음을 만들어 들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효과는 대부분 음향의 후반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녹화 시 대본에 효과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후반 작업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효과 녹음 장면

보통 효과맨(왼쪽), 음향감독(가운데), 조연출 또는 스크립터(오른쪽)가 함께 자리하며 아나부스 안의 연기자는 부조정실의 사인을 받고 대사 녹음을 연기한다.



효과실 내 효과 장비와 마이크

생활에서 소리에 필요한 작은 물건이 비치되어 있다. 생활 효과음은 녹음되어 있는 자료보다 모니터를 보고 상황에 맞게 소리를 픽업한다.

드라마 효과 더빙

편집실에서 편집된 내용을 더빙실에서 더빙 감독과 2~3명의 효과 감독이 음향에 대한 최종 더빙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야외 장면에서 취음하지 못한 주변의 생활 소음(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행인의 발걸음 등)을 삽입하고, 내용에 필요한 효과를 기계를 사용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직접 효과맨이 영상을 보고 소리를 연출한다.

기존 효과음 사용

효과를 연출할 때에는 기존 녹음된 효과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효과와 효과를 합성하여 새로운 효과음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특수 효과음을 주문하는 감독에게는 시간을 갖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베가스'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더빙이나 효과음 연출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효과를 처리하기도 한다.



모니터를 보면서 효과를 내는 효과맨

야외 촬영에서는 연기자의 대사만 주로 픽업하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 등을 담아 오지 못해 효과 더빙을 통하여 음향 후반 작업을 진행



발소리 효과 작업

효과맨이 각종 신발을 신고 발소리 효과 연기를 한다.

현장 취음과 영화 효과 비교

야외도 효과맨이 참여하여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동시 녹음과 같이 주변을 효과를 취음해야 하나 국내 드라마 제작비나 물리적인 시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수개월 간의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제작하기 때문에 TV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화와 같은 웅장한 스케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TV 효과는 짧은 시간에 순발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향 효과에 대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 